

尹정부 신규댐 계획 제동 걸려 환경부, 지역 반발에 절반 철회

14곳 중 7곳 건설 중단 공식화
수입천·단양천·옥천댐 등 제외
무리한 재추진·주민반발 원인
규모 작아 홍수·가뭄 효과 미흡

윤석열 정부 때 추진된 14개 신규댐 건설 계획 중 절반이 백지화된다. 지역 주민 반대가 심하고 필요성 또한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 받는 7곳이 취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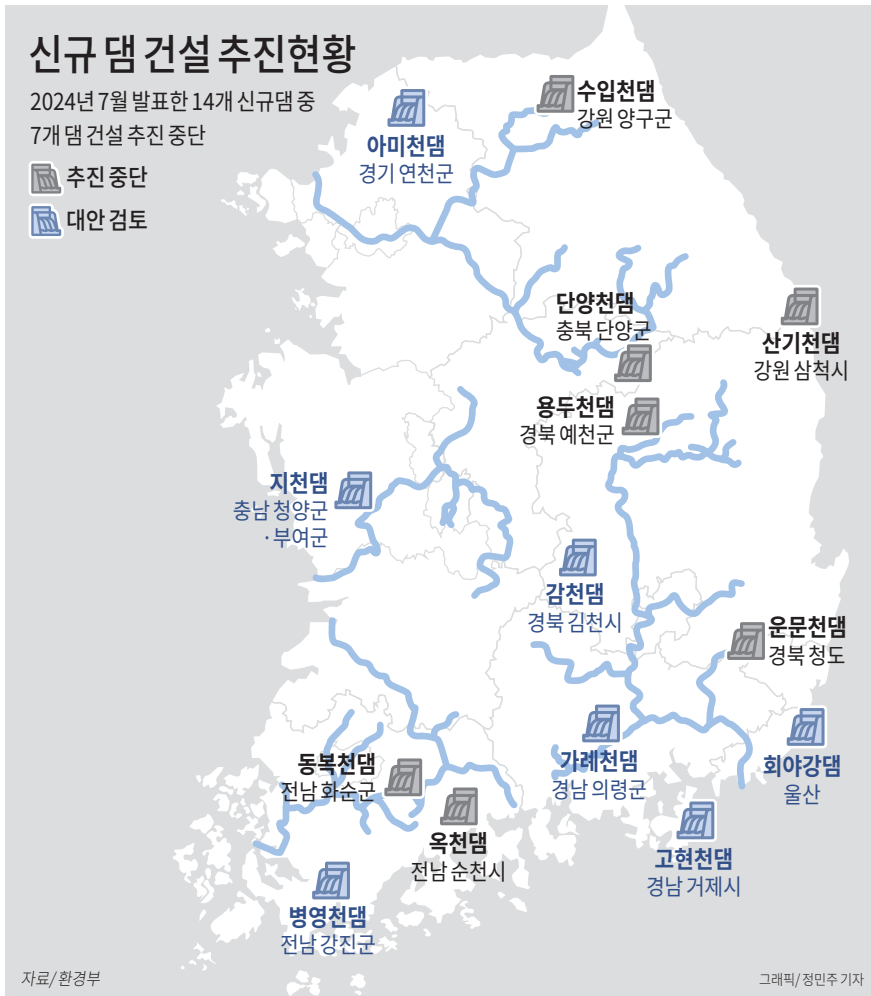
환경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신규댐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건설 추진이 중단되는 7개 댐은 강원 양구의 수입천댐, 충북 단양의 단양천댐, 전남 순천의 옥천댐, 전남 화순의 동북천댐, 강원 삼척의 산기천댐, 경북 청도의 운문천댐, 경북 예천의 용두천댐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 지난해 7월 발표한 14개 신규댐 중에서 필요성이 낮고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많은 7개 댐은 건설 추진을 중단한다”며 “나머지 7개 댐은 지역 내 찬반 여론이 대립되거나 대안 검토 등이 필요해, 기본구상 및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는 등 현 정부는 지난 7월 이후 댐의 필요성·적정성·지역수용성 등에 대한 정밀 재검토를 벌였다. 신규댐의 홍수·가뭄 예방 효과를 비롯해 지역 주민 간 찬반논란 등이 고려 대상이었다.

전 정부는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으로 14개 신규댐 건설을 홍보했다. 그러나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에는 부족한 규모가 작은 여러 개의 댐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역에서 요구하는 물수요에 대한 정밀한 대안 검토 없이 댐을 계획하거나, 하천정비 등 타 대안보다 댐을 우선적으로 계획한 곳도 있었다.

14개 신규댐 중 일부는 과거에 주민 반대로 철회되었음에도 무리하게 댐을 재추진했다. 게다가 댐 추진계획 발표



이후에야 주민설명회를 하는 등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지역사회의 반발을 초래했다.

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밀하게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것만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의 예고대로 환경부는 신규댐 중 필요성이 낮고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많은 7개 댐은 짓지 않기로 했다. 이 가운데 수입천댐, 단양천댐, 옥천댐 등 3곳은 지역 반대가 심해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을 보류했었다. 이번에 4곳을 추가로 제외된 것이다.

나머지 7개댐은 지역 내 찬반 여론이 대립되거나, 추가적인 대안 검토 등이 필요하여 기본구상 및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지천댐(충남 청양·부여)과 감천댐(경북 김천)은 지역 내 찬반 논란이 첨예한 만큼, 기본구상에서 댐 백지화, 홍수조절댐, 추가 하천정비 등 대안을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미천댐(경기 연천)은 홍수 대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목적 또는 홍수조절 기능에 대해서는 더 정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 농업용저수지 증고로 계획했던 가례천댐(경남 의령)과 고현천댐(경남 거제)은 수문을 우선 설치하여 홍수조절기능을 보완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회야강댐(울산 울주)과 병영천댐(전남 강진)도 당초 계획했던 규모의 적정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농업박람회서 한돈 ‘영양적 우수성’ 강조

한돈자조금, 비타민B1·아연 등 알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를 계기로 국산 돼지고기 한돈의 영양학적 우수성 알리기에 나섰다.

지난 25~28일 나흘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한돈자조금은 ‘한계 없는 능력, 국산 돼지고기 한돈’을 컨셉으로 소비자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한돈의 매력을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단순한 정보 소개에 그치지 않고, 한돈이 가진 건강한 가치를 다양한 콘텐츠와 홍보영상을 통해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방문객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이번 박람회 기간동안 한돈자조금 홍보부스에서 ▲한돈의 신선함과 단백질·비타민B1·아연·셀레늄 등 풍부한 영양소 ▲BBC가 선정한 세계 8위 슈퍼푸드 ‘돼지기름(라드유)’의 가치를 확산했다. 또 국민 식탁의 대표 단백질로서 한돈이 가진 ‘한계 없는 능력’을 입체적으로 선보이며 소비자의 신뢰를 한층 높이는 기회도 가졌다.

현장에서는 관람객의 적극적인 참여

를 유도하는 이벤트도 풍성하게 마련됐다. 한돈 SNS채널 팔로우와 퀴즈 참여를 통한 ‘한계 없는 능력, 한돈’ 물렛 이벤트는 관람객들의 높은 참여를 이끌었고, 레디백·쿠션안대·타포린백 등 다채로운 한돈 굿즈가 큰 인기를 얻었다.

주말을 맞아 행사장을 찾았다는 이효선 씨(41)는 “귀촌에 관심이 많아 방문했다가 우연히 한돈 홍보부스를 들르게 됐다”며 “한돈에 단백질과 비타민 같은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건 잘 몰랐는데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되어 유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손세희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은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우리 농업과 식품산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또 “현장을 찾은 수많은 관람객이 한돈의 신선함과 영양적 가치를 체험하며 한돈에 대한 신뢰를 다시 확인한 계기가 됐다”고 했다.

한돈자조금은 이번 박람회 성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와의 접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다가오는 한돈데이(10월1일)를 기념해 서울 성수동 XYZ SEOUL에서 ‘2025 슈퍼한돈페스타 팝업스토어’(10월 11~19일)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무보·경찰청, ‘K-치안산업’ 해외진출 지원

보험료 부담 완화·수출 컨설팅 제공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경찰청과 함께 K-치안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다. 무보는 지난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K-치안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치안산업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게 골자다. 경찰청은 국제치안산업대전 참가기업과 치안 분야 국가 연구개발 과제 수행기업 등을 발굴·육성하고, 무보는 수출보험 한도 우대, 보험요율 할인, 국외기업 신용조사, 무료 1대1 맞춤형 컨설팅(Trade-Sure) 등을 제공한다.

무보 관계자는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금융 리스크를 완화해 무역보험 이용

문턱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중소수출기업이 대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치안산업은 방범·보안 장비, 범죄 예방 솔루션, 과학수사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산업군이다. 2023년 기준 국내 시장 규모는 연간 매출액 38조원, 기업 수 1만4000개, 종사자 66만명에 달한다. 양기관은 이를 차세대 수출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장진욱 무보 중소중견사업본부 부사장은 “이번 협약이 불확실한 대외 여건 속에서 해외시장에 판로를 개척하는 치안산업 관련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여러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수도권 집중 벗어나… 5극3특 균형발전 추진

지방시대위원회, 균형성장 전략 의결
초광역권 5곳·특별자치도 3곳 중심
150조 국민성장펀드·비수도권 투자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5개 초광역권 및 3개 특별자치도 중심으로 바뀌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30일 확정됐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세종에서 첫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5극(수도권·충청권·대경권·동남권·호남권) 3특(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를 의결했다.

5극3특은 수도권과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 강원, 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이다. 이재명 정부의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비전을 실현을 목적으로 ▲5극3특

경제권 ▲5극3특 생활권 ▲5극3특 추진 기반 등 3대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우선 지역의 기존 주력산업을 인공지능(AI)와 연계해 권역별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AI 인력 양성을 위한 AI특화 계약학과를 신설한다. 5극3특별 연구인력 혁신센터도 확대한다.

또 제조업 중심 중소·중견기업이 미래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부터 사업전환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AI 대전환을 기반으로 권역별 관광 콘텐츠와 인프라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최근 출범한 국가 AI전략 위원회와 합동 전담반(TF)을 구성해 협업할 예정이다. 특히 위원회가 11월에 발표하는 AI액션플랜을 5극3특 설계도와 연계해, 국가AI 대전환을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5년간 150조 원이 투입되는 국민

성장펀드와 벤처투자시장의 비수도권 투자 비중도 40%까지 늘린다. 권역별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하고, 한국벤처투자사무소(1개소)와 지역엔젤투자허브(4개소)를 권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새만금을 서해권 물류거점으로 육성한다. 혁신도시 활성화와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추진한다.

김경수 위원장은 “이번 설계도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균형성장 정책을 5극3특 권역단위로 연결·조정할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지방균형발전 관련 예산을 편성할 시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등 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잡월드, 가족과 함께하는 ‘K-스킬데이’

9일 숙련기술체험관 특별 개방

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가 오는 10월 9일 ‘추석 K-스킬 데이(Skill Day)’를 열고 숙련기술체험관을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하루 동안 특별 개방한다.

이번 행사는 숙련기술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청소년 중심으로 운영되던 체험 기회를 보호자까지 확대해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당일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체험할 수 있다.

숙련기술체험관은 2020년 문을 연 국내 최대 규모 숙련기술 전문 체험관으

로, 전통·기초·첨단 기술 분야의 10개 체험실을 갖췄다. 자동차 뿌리 기술 등 국가산업을 이끌어온 분야를 직접 체험하며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기르고 진로 탐색에도 도움이 된다.

추석맞이 특별 이벤트도 마련된다. 체험객들에게는 석고방향제 만들기 체험이 무료로 제공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예약은 한국잡월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이병균 잡월드 이사장은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은 물론, 숙련기술의 가치와 미래 전망을 직접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